



## 왕의 고난, 죽음, 부활

### 성경 본문

---

마태복음 26:1 – 28:20

### 요절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 배경

---

역사적으로 이 시기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임명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로서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가야바는 대부분의 전임자들보다 더 오래,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낸 것으로 보아 로마 당국과 원활하게 협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은 가야바였으며, 그는 다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적 역할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당대의 정치 체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함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건이 계획되고 있던 시기에, 베다니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는 돌아가실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으며,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원인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일시적으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신은 다가오는 육체적 고통과 씨름했으나, 그분의 영과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기까지 었드렸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평온하게 그분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는 다음날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유대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의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지도자들이 선고와 처형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혐의가 로마 법정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근거로 '자신이 카이사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며 정치적 고발

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했지만, 끔찍한 채찍질로 몸이 쇠약해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가 일반 백성에게 열리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명예로운 회원이자 예수님을 은밀히 추종하는 자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단단히 봉인하고 주변에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한 주의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도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가능성도 있음)가 무덤으로 향하던 중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자 천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지상에서의 40일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 선교 활동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었으나, 예수님은 그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의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질문

---

1. 마태복음 26장 6-13절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장면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2.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래했지만(마태복음 26:14-16), 나중에 깊이 후회하고 이를 되돌리려 했습니다(마태복음 27:3-10). 유다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3.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절기의 두 가지 요소인 무교병 빵과 포도주 잔을 취하여 다가오는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26-29).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의 내용물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4.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홀로 겪으셨던 큰 내면적 투쟁의 본질을 설명하십시오.

5.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며 그리스도를 보호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을 때는 매우 용감해 보였는데, 나중에 두 젊은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는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7.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외쳤던 군중 속의 사람들(마태복음 27:20-23)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8.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 무엇을 견뎌야 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9. 예수님의 부활(마태복음 28:1-7)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예수님은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 당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 결론

---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게 하셨을 때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 왕의 고난, 죽음, 부활

### 성경 본문

---

마태복음 26:1 – 28:20

### 요절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 배경

---

역사적으로 이 시기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임명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로서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가야바는 대부분의 전임자들보다 더 오래,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낸 것으로 보아 로마 당국과 원활하게 협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은 가야바였으며, 그는 다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적 역할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당대의 정치 체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함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건이 계획되고 있던 시기에, 베다니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는 돌아가실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으며,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원인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일시적으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신은 다가오는 육체적 고통과 씨름했으나, 그분의 영과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기까지 었드렸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평온하게 그분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는 다음날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유대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의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지도자들이 선고와 처형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혐의가 로마 법정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근거로 '자신이 카이사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며 정치적 고발

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했지만, 끔찍한 채찍질로 몸이 쇠약해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가 일반 백성에게 열리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명예로운 회원이자 예수님을 은밀히 추종하는 자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단단히 봉인하고 주변에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한 주의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도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가능성도 있음)가 무덤으로 향하던 중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자 천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지상에서의 40일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 선교 활동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었으나, 예수님은 그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의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질문

---

**1. 마태복음 26장 6-13절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장면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마태복음 26: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사랑과 경배는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십니다.
-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2.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래했지만(마태복음 26:14-16), 나중에 깊이 후회하고 이를 되돌리려 했습니다(마태복음 27:3-10). 유다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행동의 결과를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탐욕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잘못된 야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의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절기의 두 가지 요소인 무교병 빵과 포도주 잔을 취하여 다가오는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26-29).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의 내용물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들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죄 사함은 동물의 희생으로 얻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몸과 피를 바칠 때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요소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빵과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것들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4.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홀로 겪으셨던 큰 내면적 투쟁의 본질을 설명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곧 다가올 신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세상의 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부담감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대신해 죄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으로서, 예수님의 의로운 영혼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끔찍한 죄의 무게에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5.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며 그리스도를 보호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

## 을까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판단으로 그리스도를 방어하려 했으나, 군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체포하지 않은 사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결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절제와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6.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을 때는 매우 용감해 보였는데, 나중에 두 젊은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는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행동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베드로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진 고독과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은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일 때, 또는 우리가 혼자 있고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상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 **7.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외쳤던 군중 속의 사람들(마태복음 27:20-23)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인기 있는 행동을 따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신앙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시작되면, 대중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소수의 헌신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세속적인 지도자를 원했음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 **8.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 무엇을 견뎌야 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죄를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사실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골고다를 둘러싼 물리적 어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을 때 겪으신 어둠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으며, 인류 구원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 9. 예수님의 부활(마태복음 28:1-7)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10. 예수님은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 당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성결함을 받을 때는 그분이 더 큰 분량으로 임하시며,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은혜입니다.

## 결론

---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게 하셨을 때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리스도의 우월성

###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 – 4:13

### 요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8-9)

### 배경

히브리서의 저자로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목되며, 그는 이 네 장에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여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을 구축해 왔습니다. 저자는 서두의 세 구절에서 옛 종교(유대교)와 새 종교(기독교)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임을 밝히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천사보다 뛰어나고(히브리서 1:4-2:18),
- 모세보다 위대하시며(히브리서 3:1-19),
- 더 나은 안식을 제공하십니다(히브리서 4:1-13).

이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최고 주체이며 완전히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13번 사용된 “~보다 나은”(better)이라는 주제는 첫 번째 장의 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은혜 사역을 대비시키며,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며, 죄를 극복하고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가 매우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는 주로 천사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이 하늘의 존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천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긴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첫째,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인했습니다.
- 둘째, 그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우월한지 설명했습니다.

## 질문

---

1. 저자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저자는 본문의 서두에서 시적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에 자세히 설명된 사실, 속성, 행동을 검토하고,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직접 작성해 보세요.
3. 천사는 하늘의 존재이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신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떤 일곱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나요? (히브리서 1:3-14)
4. 2장의 처음 네 구절에서 저자는 영적 태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왜 태만의 위험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멀어지게 될까요?
5. 히브리서 2장 3-4절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6.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해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으며,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3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7.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조상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7-11)
8.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히브리서 4:1-3)
9.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부분을 읽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 결론

---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 그리스도의 우월성

###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 – 4:13

### 요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8-9)

### 배경

히브리서의 저자로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목되며, 그는 이 네 장에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여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을 구축해 왔습니다. 저자는 서두의 세 구절에서 옛 종교(유대교)와 새 종교(기독교)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임을 밝히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천사보다 뛰어나고(히브리서 1:4-2:18),
- 모세보다 위대하시며(히브리서 3:1-19),
- 더 나은 안식을 제공하십니다(히브리서 4:1-13).

이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최고 주체이며 완전히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13번 사용된 “~보다 나은”(better)이라는 주제는 첫 번째 장의 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은혜 사역을 대비시키며,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며, 죄를 극복하고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가 매우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는 주로 천사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이 하늘의 존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천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긴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첫째,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인했습니다.
- 둘째, 그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우월한지 설명했습니다.

## 질문

---

### 1. 저자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독자들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1장에서 언급된 그의 성육신, 속죄, 영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제사 제도보다 우월한 방법을 설명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2. 저자는 본문의 서두에서 시적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에 자세히 설명된 사실, 속성, 행동을 검토하고,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직접 작성해 보세요.

학생들이 생각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상속자, 창조주, 신성한 영광의 광채, 우주를 유지하는 자, 죄로부터의 구원자, 고귀하신 분'이라는 그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는 다른 묘사적 문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유자, 친구, 인도자, 살아있는 말씀, 선한 목자, 생명의 빵, 생수, 알파와 오메가 등)

### 3. 천사는 하늘의 존재이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신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떤 일곱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나요? (히브리서 1:3-14)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요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4절).
- 예수님은 만아들이시므로 천사들이 경배해야 합니다(6절).
-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8절).
- 예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으셨으며, 동료들보다 뛰어나십니다(9절).
-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10절).
-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11-12절).
-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13절).

### 4. 2장의 처음 네 구절에서 저자는 영적 태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왜 태만의 위험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멀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분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메시지의 어떤 부분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학생들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토론할 때, 개인적인 헌신이나 정기적인 교회 참석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믿는 바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안주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영적 유산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 영역을 발견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회복 단계를 권고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보세요.

#### **5. 히브리서 2장 3-4절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증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을 확증하셨으며,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 **6.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해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으며,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3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선지자이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졌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으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세는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두 인물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7.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조상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7-11)**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성령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속삭임까지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 **8.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왜**

## 중요한가요? (히브리서 4:1-3)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과 우리가 그분께 항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안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더불어, 사람이 잘못된 마음과 불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9.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부분을 읽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고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히브리서 4:13)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을 드러내십니다.

## 결론

---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 성경 본문

히브리서 4:14 - 10:39

### 요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히브리서 9:24)

### 배경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구약 율법에 의해 예표된 새 언약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상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구약을 대체한 많은 유대인의 가르침과 관습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왕인 멜기세덱의 역할과 비교하고 구약 율법에 따라 확립된 레위 제사장직과 대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의 후손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사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제사장직과 왕권의 결합에 대한 더 이른 선례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두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주어진 후 항상 분리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나, 구약성경에는 그의 출생, 사망,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며 그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그리스어 ‘mes-ee-tace’는 ‘평화와 우정을 만들거나 회복하기 위해, 또는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질문

1.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장들의 의무는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서 5:1)
2. 히브리서 4장 15절과 5장 2, 8절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발전시켜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5장 11절에서 그는 계속하기 전에 다른 경고를 삽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4. 히브리서 6장 4-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엄중한 경고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위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5. 6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닻이 필요한가요?
6. 7장-10장은 각각 구약의 그림자 예보다 새 언약에서 '더 나은' 또는 '우월한' 것을 강조합니다. 각각을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7. 히브리서 10장 19-21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2-25절은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를 나열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8.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신 유일한 분, 즉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37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심 있게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 결론

---

우리는 하나님과의 중재자 및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원으로 인도해 줄 닻'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 성경 본문

히브리서 4:14 - 10:39

### 요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히브리서 9:24)

### 배경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구약 율법에 의해 예표된 새 언약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상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구약을 대체한 많은 유대인의 가르침과 관습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왕인 멜기세덱의 역할과 비교하고 구약 율법에 따라 확립된 레위 제사장직과 대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의 후손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사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제사장직과 왕권의 결합에 대한 더 이른 선례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두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주어진 후 항상 분리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나, 구약성경에는 그의 출생, 사망,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며 그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그리스어 ‘mes-ee-tace’는 ‘평화와 우정을 만들거나 회복하기 위해, 또는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질문

#### 1.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장들의 의무는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서 5:1)

대제사장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의무는 백성을 대신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죄, 예배, 감사 등의 목적으로 드려졌으며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레위기에 설명된 제사장의 의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론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으며,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직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뒤에서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 제물은 자신의 죄와 유대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2. 히브리서 4장 15절과 5장 2, 8절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고난을 겪으며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완전히 동일시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를 가지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16). 학생들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노력하신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접근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 **3.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발전시켜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5장 11절에서 그는 계속하기 전에 다른 경고를 삽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저자는 독자들을 '듣는 데 둔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문구는 '둔한, 느린, 게으른, 무감각함'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합성어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듣는 데 둔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냉담이나 무관심, 영적 분별력 부족,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둔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여러분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 **4. 히브리서 6장 4-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엄중한 경고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위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기독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배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배교와 이 구절에서 묘사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배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것을 구분합니다. 잠시 멀어진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존재합니다. 6절에 번역된 'if they fall away'(만일 그들이 타락한다면, 개

역개정: 타락한 자들은)의 그리스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떨어져 나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구절에서 묘사된 최종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타락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배교하다'라는 뜻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배교 상태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접근 수단을 거부하고, 자신이 취한 입장으로 인해 영원히 단절된 것입니다.

#### **5. 6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닻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첫째, 하나님의 본질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둘째, 예수님을 통해 접근 가능해진 하나님의 현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양이십니다. 학생들이 복음의 소망이 안전한 닻이 되어주었던 실제로 겪은 폭풍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십시오.

#### **6. 7장-10장은 각각 구약의 그림자 예보다 새 언약에서 '더 나은' 또는 '우월한' 것을 강조합니다. 각각을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7장 -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은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나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사역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는 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질서와 비교됩니다(창세기 14:17-24, 시편 110:4).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직(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견주어 볼 때 열등하다고 여겨집니다.

8장 - 그리스도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새 언약이 언급된 것과,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일시적인 것으로 돌판에 기록되었고, 동물의 피로 인봉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인봉되었습니다.

9장 - 하늘의 성소는 지상의 성소(성막/성전)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광야의 성막과 이후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지어졌으며,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그림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0장 - 그리스도의 희생은 유대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율법의 동물 희생보다 훨씬 뛰어나며,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을 때 죄를 없앨 수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네 장은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지만, 기본 전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율법보다 더 나은 제사장직, 언약, 성소,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되셨습니다(8:5). 그분이 계실 때는 그분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7. 히브리서 10장 19-21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2-25절은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를 나열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가까이 가라 -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분리된 휘장이 제거되었으므로 가능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게 붙잡으라 -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재와 성취를 경험한 우리는 공허한 의식과 예전의 본보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서로를 고려하라 - 개인적인 신앙 경험 외에도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를 넘어 가족과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본보기가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여줘야 합니다.

각 학생에게 종이 한 장을 주고 그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굳건히 서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적으라고 하십시오. 이 종이를 가져가서 집이나 지갑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그들의 결심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8.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신 유일한 분, 즉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37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심 있게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건강, 가족, 정부 등 다양한 대상에 신뢰를 두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유대인의 전통과 의식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언약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확신을 지키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탐구하도록 합니다.

## 결론

---

우리는 하나님과의 중재자 및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원으로 인도해 줄 닻'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믿음에 대한 권면

###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1 – 13:25

### 요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1-2)

### 배경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과거의 경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도우셨던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세 장은 인류의 시작과 이 서신이 쓰여질 때까지의 교회 역사를 다룹니다. 저자는 교회 시대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고 더 나은 경륜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서신의 절정 부분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 앞서, 그는 구약과 신약 경륜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두 경륜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옛 경륜이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보여준 후,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획이 성취된 적절한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를 이루었습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최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등대 불빛처럼 빛났습니다.

12장은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어 천국을 향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경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들에게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 질문

1.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신의 말로 작성해 보세요. 그런 다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2.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을 통해 '선진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선진이라는 용어는 이 장에서 언급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믿음을 입증했습니까?
3. '영적 거인'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믿음과 안정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4. 핵심 구절을 고려하십시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 히브리서 12장 5절은 '주의 징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징계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주의 징계와 관련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격려를 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히브리서 12장 18~29절에서 무엇이 비교, 대조됩니까? 저자는 왜 이런 비교를 할까요?
7. 13장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세 가지 지침을 나열하십시오. 오늘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8. 저자는 '미혹하는 자들과 이상한 교훈'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히브리서 13:9).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위협하는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결론

---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함을 받지 못한 채 신앙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천국의 본향으로 향해 '햇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 믿음에 대한 권면

###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1 – 13:25

### 요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1-2)

### 배경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과거의 경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도우셨던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세 장은 인류의 시작과 이 서신이 쓰여질 때까지의 교회 역사를 다룹니다. 저자는 교회 시대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고 더 나은 경륜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서신의 절정 부분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 앞서, 그는 구약과 신약 경륜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두 경륜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옛 경륜이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보여준 후,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획이 성취된 적절한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를 이루었습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최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등대 불빛처럼 빛났습니다.

12장은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어 천국을 향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경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들에게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 질문

1.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신의 말로 작성해 보세요. 그런 다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 대해 설명해 보세요.

칠판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등 스위치를 켜기 = 전기에 대한 신뢰
- 자동차 시동 걸기 = 자동차가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
- 비행기 탑승 = 기류, 강력한 엔진 또는 조종사에 대한 신뢰
- 엘리베이터 이용 = 유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신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순간, 마약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해방, 치유, 자연의 경이로움 등을 통해 창조주를 느낄 수 있는 예들을 들어 다른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을 통해 '선진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선진이라는 용어는 이 장에서 언급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믿음을 입증했습니까?

그들은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신앙의 영웅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 행위로서 믿음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말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이 장에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그들이 신념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건설함으로써 자신과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그 행위에 보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위험해 보이는'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의 보상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해보세요.

## 3. '영적 거인'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믿음과 안정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영적 거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을 지니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 결과를 구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추구하며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십시오. 하나님께 결과를 원할 때, 우리는 신실함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우리의 개인 생활, 취미, 행동, 우선순위, 사랑 등과 관련하여 성령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단계들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영적 거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승인과 축복을 바라고 그 단계를 밟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과를 원한다면

쉬운 일이 아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4. 핵심 구절을 고려하십시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방해 요소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접하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보, 소유물, 지위, 명성, 취미, 그리고 타인의 의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우리를 쉽게 사로잡는 익숙한 사소한 것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경주를 뛰기 위해 무거운 옷을 벗듯이,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5. 히브리서 12장 5절은 '주의 징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징계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주의 징계와 관련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격려를 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징계를 받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경멸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이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징계와 훈계를 받게 되는데(8절), 이는 그리스도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나 설교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약속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10절), 우리 삶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자라게 될 것(11절)입니다. 학생들은 징계의 유익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 6. 히브리서 12장 18~29절에서 무엇이 비교, 대조됩니까? 저자는 왜 이런 비교를 할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과 구약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 시대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내산의 경험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하며, 율법을 주신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온산, 새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대조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 7. 13장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세

## 가지 지침을 나열하십시오. 오늘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록을 만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절 -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

2절 - 친절하게 대하라.

3절 -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라.

4절 - 배우자에게 진실하라.

5절 - 만족하라.

6절 -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라.

7절 - 영적 인도자를 따르라.

목록을 작성한 후,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 8. 저자는 '미혹하는 자들과 이상한 교훈'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히브리서 13:9).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위협하는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화론, 우리 모두가 매일 죄를 짓는다는 것, 간음과 동성 결혼 허용 등 몇 가지 거짓 교리를 나열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하라는 훈계에 대해 토론하도록 유도하세요. 우리가 참된 교리를 알고 그 안에 확고히 서 있다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새롭고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교리를 알기 위해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할 수도 있지만, 가품을 가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품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 결론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함을 받지 못한 채 신앙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천국의 본향으로 향해 '횃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